



초점 / 경유승용차 허용

경제정책조정회의 결과

노무현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부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27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005년 경유승용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경유차환경위원회에서 경유승용차 허용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에너지가격 체계 개편문제는 경유승용차 판매추이를 지켜보가며 2005년 중 검토키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 일 시 : 2003. 3. 27(목)
 - 장 소 : 청와대
 - 회의주재 : 노무현 대통령 (17개 부처장관 참석)
- 전이되거나 경유RV의 급증을 막기 위해 휘발유차와의 차액인 150만원~200만원을 경유승용차와 경유 RV에 특소세로 증과하는 역인센티브 방안 검토
- 경유승용차 관련 내용
 - 허용시기 : 2005년
 - 2005년 : 유로-3와 유로-4 차량 병행 판매
 - 2006년 : 유로-4 차량 판매
 - 경유차 환경위가 제시한 유로-3, 유로-4 차량의 50:50 쿼터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유로-4 차량에 부과되는 특소세 50% 감면
 - 에너지가격체계 조정 문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수준으로 조정하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를 보가며 2005년중 검토
 - 휘발유차량이 경유차량으로 급격하게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제정
 - 4월중 관계부처와 전문가·시민단체·업계 관계자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법안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을 연말까지 결정
 - 경유의 황함량 : 2006년부터 30ppm 적용
 - 무·저공해차 개발·보급
 - LPG·CNG차량과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계 지원
 - 추후 일정 : 환경부, 6월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 예정